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감정표현 ‘怖’에 관한 번역 양상 - 한국어 번역 작품과 영어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

양 정 순

(경희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감정표현은 마음·의식의 내적 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감정표현 어휘’, ‘고백표현’, ‘문 구성’, ‘간투사 표현’, ‘사역·수동·수수 표현’, ‘조사’ ‘호칭’, ‘문체 선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감정표현 가운데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こころ』에 나타난 ‘怖’의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을 ‘품사’ ‘주어처리’ ‘의미 분류’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怖’에 관한 번역 양상을 보면, 사전에 제시된 지시적 표현 이외에, ‘怖’의 의미가 아닌 다른 표현, 다른 품사로도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 문에서 사용된 ‘怖’의 감정 어휘에 대해, 한국어역은 일부 ‘명사’, ‘관용구’, ‘부사+동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로 번역되었다. ‘명사’인 경우는 용언으로 풀어 설명한 후 강조 어휘를 더해 번역했으며, ‘부사+동사’는 2개 이상의 어휘가 이용된 어구로 번역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번역 어휘는 ‘Fear類’ 뿐 아니라 ‘Surprise類’와 ‘Sadness類’의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 역의 경우, 한국어 역에서 보였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로 ‘동사→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 ‘형용사→형용사, 동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명사→be+동사의 과거분사’로 번역되었으며, ‘Surprise類’, ‘Anger類’, ‘Fear類’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외에 감정 주체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까지 이용되는 등 매우 다양했다. 일본어 문 of 감정 주체의 유무에 따른 한국어 역은 대체로 일본어 문과 유사한 문 구조로 번역되었고, 감정 주체가 생략된 3인칭인 일부 예에서는 생략된 요소가 복원 가능하도록 유도한 번역이 보였다. 영어 역을 보면, 일본어 문 of 감정 주체의 생략 유무와 관계없이 감정 주체와 판단 주체까지도 복원했으며, 서술자 중심의 주어를 내세워 그에 따른 서술어를 선정해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화자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주변 상황과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주제어 : 감정표현, 번역양상, ‘두려움’의 감정표현, 감정주체

I. 머리말

감정이라는 표현은 심리학적으로 감각이나 관념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 의지·이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의식의 주관적인 면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한다.¹⁾ 일본어는 감정표현이 풍부한 언어 중에 하나²⁾로, 이러한 감정 표현의 적절한 구사에서 일본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한다.³⁾ 또 일부 감정표현에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⁴⁾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⁵⁾ 그렇기에 감정표현에 대한 번역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 및 언어 발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작가의 언어 자원에 따라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어 표현이 번역될 때 나타나는 번역 어휘는 사전에서 제시된 바와는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번역 문학이 목표 언어의 언어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⁶⁾ 교육 자료로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표현 정리가 아니라 실제 번역에서 나타난 표현 양상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고는 감정표현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감정표현에 대한 연구는 감정표현의 분류, 감정표현에 대한 문법구조, 통사적·의미적 분석, 담화 분석, 대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카무라 아키라(中村明)⁷⁾는 일본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감정표현에 대해

-
- 1) 中村明編, 『感情表現辞書』, 東京堂出版, 1993, p.12.
 - 2)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pp.194-204.
 - 3) 森田良行,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p.80, p.311.
 - 4)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pp.55-84.
 - 5) 라데군디스 슈틀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pp.101-109.
 - 6) 中村桃子, 『性と日本語』, 日本放送出版協会, 2007, p.52.

‘喜·怒·哀·怖·恥·好·厭·昂·安·驚’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따라 어구와 표현을 분류 분석했다. 센코·K·메이나드(泉子·K·メイナード)⁸⁾는 감정표현의 종류로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 감탄문·수사의문 등의 감정표현을 위한 ‘문 구성’, ‘간투사 표현’, 발상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 상대에게 호소하는 ‘조사’, ‘문체’ 등을 제시하고, 드라마를 대상으로 감정표현의 어휘와 언어 전략에 의해 실현되는 장면 상황에 대해 문화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석했다. 구도 마유미(工藤真由美)⁹⁾는 감정동사와 감정·감각형용사에 대해 인칭과 아스펙·텐스(アスペクト・テンス)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 표현 체계를 분석했다. 모리타 요시유키(森田良行)¹⁰⁾는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감정표현의 수단으로서 ‘-は’, ‘형용사’, ‘부사’ 등의 표현 어휘를 제시했으며, 인칭과 내외(内·外)관계를 나누어 분석했다. 데라 무라 히데오(寺村秀夫)¹¹⁾는 감정표현에 대해 감정 주, 주체, 대상, 요인 등에 의해 동사와 형용사를 「일시적 기분의 움직임(一時的な気の動き)」, 「능동적 마음의 움직임·적극적 감정의 발동(能動的な心の動き・積極的感情の発動)」, 「감정의 직접적 표출(感情の直接的表出)」, 「감정적 품평(感情の品定め)」라는 4가지 형식으로 분류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제시했다. 요시카와 치즈코(吉川千鶴子)¹²⁾는 격의 대상, 수동태와 능동태, 표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표현에 대해 일본어와 영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했다. 김광태¹³⁾는 오노매토피어를 통해 일한 양언어의 감정표현을 비교 분석했고, 송은미¹⁴⁾는 감정 동사를 감정 변화 동사, 감정 상태

7) 주 1)과 같음.

8)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2001, pp. 309-313.

9)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p.76 p.176.

10) 주 3)과 같음, p.12, p.65, p.76.

11)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1982, pp.139-154.

12) 吉川千鶴子, 『日英比較 動詞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 p.21, p.97, p.217.

13) 김광태, 『日韓兩言語の感情の 오노매토피어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4) 송은미,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学研究 제30집, 2011, pp.173-188.

동사, 감정 반응 동사로 분류하고 한일양언어의 동사 구조에 대해 비교 분석을 했으며, 고은숙¹⁵⁾은 한일 양 언어의 감정형용사문을 대상으로 문법 특징과 인칭과의 제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와 같이 감정표현에 대한 연구는 감정 형용사, 동사, 관용구 등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대상으로 줄고 「소설 『こころ』에 나타난 감정표현 ‘驚’에 관한 번역 양상」에 이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작품은 인간의 깊은 내면과 그 갈등을 ‘私(1인칭)’의 시점에서 서술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こころ』와 그 번역 작품으로 하고, 비교 대조를 위해 영어 번역 작품을 더했다. 분석 대상 어휘로는 소설 『こころ』에서 나타난 ‘怖’의 감정표현 어휘로 한다.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것이, 대화의 장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다양한 문법 요소가 생략 가능하며, 그 가운데 인칭 생략이라는 부분적 생략이 있다¹⁶⁾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영어의 인칭 대명사를 생략시키거나 유의해서 사용하게 한다고 한다.¹⁷⁾ 이에 본고는 감정 주체(‘怖’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가 나타난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나누고, 감정 주체에 대해 1인칭(=발화 행위 주체)과 1인칭이 아닌 경우(2·3인칭)로 나눈다.¹⁸⁾ 소설의 특징상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여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회화문’과 전달자가 서술하는 ‘지문’, ‘편지문’으로 나누어 한국어 어역과 영어역은 어떤 양상으로 재구성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 자료로의 접근을 위해, 번역가에 의해 재구성된 감정표현 어휘에 대해 품사와 의미 분류로도 접목하고자 한다. 감정표현 어휘는 나카무라 아키라(中村明)의 『感情表現辞書』에 나타난 어구편의 ‘怖’에 관한 어휘 표현을 이용하고, 그 표현이 번역 작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는지 분석한다.¹⁹⁾

15) 고은숙, 『日韓兩國語の感情形容詞文の特徵に關한一考察』, 日本語學研究 제8집, 2003, pp.1-14.

16) 牧野成一, 『空間の言語文化學』, 안중환 역, 제이앤씨, 2001, pp.227-229.

17)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p.41.

18) 주 9)와 같음, pp.89-90, pp.173-177.

19) ‘泣く’가 ‘喜’와 ‘哀’에 분류에 속한 것과 같이 하나의 어휘가 두 개 이상의 감정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감정 영역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怖’의

* 나가무라 아키라(中村明)의 『感情表現辞書』의 '怖'에 관한 어휘 표현

<p>恐れ多い 恐ろしい 空恐ろしい 頼りない 心細い 心許ない 憂わしい</p>
<p>がくがく がたがた ぞうっと ぞっと たじたじ ときどき はらはら びくびく ひゃっ ひ야ひ야 ひやり ぶるぶる わなわ나 恐る恐る</p>
<p>たじろぐ ためらう びくつく 怯む 怯える 怯え切る 恐れる 恐ろしがる 凍る 立ち竦む 不安がる 鼻白む 思い煩う 小さくなる 竦める 悪びれる 案じる・ずる 臆する 憂える 戦く 震う 震える 震え上がる 震え戦く 震え出す 震わす 震わせる 蒼(青)ざめる 縮こまる 縮み上がる 縮む 怖がる 怖気る 怖気付く</p>
<p>怯え 怯懦 驚怖 恐れ 恐ろしさ 恐恐 恐懼 恐怖 恐怖感 恐慌 杞憂 気懸かり 気(心)後れ 胸震い 冷や水 冷や汗 慄然 物思い 物怖じ 不気味 不気味さ 不安 悲鳴 悚然 愁眉 心労 心配 心細さ 空恐ろしさ 心痛 心懸かり 臆面 臆病 畏怖 憂い 憂え 憂苦 憂国 憂慮 憂思 憂色 憂世 憂心 憂患 危懼 危惧 疑懼 戦き 戦慄 戦慄感 戦戦兢兢 鳥肌 躊躇・ためらい 震い 震え 震撼 震駭 蒼白 痛心 怖さ 怖気 怖怖 寒気 寒心 懸念 胸騒ぎ 恟恟 (一喜)一憂</p>
<p>肝を冷やす 気になる 気に病む 気を揉む 気を吞まれる 気遣い 気遣わしい 気味が悪い 冷たい風 氷を感じる 色を失う 首を竦める 水を浴びる 身も縮む 身の毛が弥立つ 心を砕く 二の足を踏む 総毛立つ 好い気持ちがない 胸が塞がる 胸を痛める 薄氷を踏む 肌に粟を生じる</p>

분위기를 나타낸 것을 다룬다.

III.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1. 회화문의 경우

회화문에서 감정 주체가 드러난 예는 극히 적었지만, 다음과 같다.

〈표 1〉 회화문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회화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주어	心配する	나(저)도	걱정하다	I	feel sorry, be anxious, worry
3인칭 주어	怖がる	아버지는	두려움을 가지다 무서워하다	father, he	be worried about be afraid of
	心配(を)する	아내는	걱정 (을 하다, 하다)	my wife	be worried

○: 감정 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보통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으며 감정 주체 또한 그대로 제시했다. 한편 영어역은 ‘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의 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²⁰⁾

* 1인칭인 경우

- (1) 「それが解らないのよ、あなた。それが解るくらいなら私だって、こんなに心配しやしません。わからないから気の毒でたまらないんです」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것 같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걱정한
 진 않지요. 모르기 때문에 딱해 죽겠어요.”[웅]

20) 번역 어휘에 대한 감정 표현 분류는 아래의 분류를 바탕으로 표[1]-표[6]에도 적용시킨다.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2008. pp.127-159.
 Shaver, P. and Schwarth, J. Kirson, D. and O Connor, C,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987, pp.1061-1086.

“I don't understand it either. If I understood, I wouldn't worry about him as I do. As it is, all I can do is feel sorry for him.”[M.M]

예 (1)과 같이 감정 주체인 화자가 ‘私だって’로 나타낸 것을, 한국어 번역 작품 모두 상대와 같음을 나타내는 ‘-도’가 선정되어 번역되었다. 일부 작품에서는 화자의 입장을 강조하여 문장을 나누어 ‘나(私)’를 두 번이나 제시하기도 했다. 영어역은 ‘either’²¹⁾를 이용해 상대와 동조를 하고 난 뒤, 화자의 감정을 서술했다.

*2 · 3인칭인 경우

- (2) 「お父さんは本当に病気を怖がってるんですよ。お母さんのおっしゃるように、十年も二十年も生きる気じゃなさそうですね」
“아버지는 정말로 당신의 병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범]
“He is really afraid of his illness. He seems to have no idea now of living on ten or twenty years more” I said to my mother, who looked perplexed.[近藤]

예 (2)와 같이 감정 주체인 ‘お父さん’은 화자와 ‘うち’의 인물로, 이에 대한 한국어역은 ‘아버지’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역을 보면 ‘He²²⁾’로 번역되는 등 ‘うち’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신 감정 주체와 대화상의 상대인 ‘my mother’ 외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화자 ‘I’를 더해 번역하는 등 대화 장면에서 관련된 인물을 구체화시켜 제시했다. 감정표현에 대한 선정 어휘를 보면, 한국어역은 ‘감정표현의 명사형+소유 동사’로 제시한 것처럼 일본어 문에 나타난 품사와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1) 다른 작품에서는 ‘Do you think that~’과 같이 인지동사를 이용해 상대의 반응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2) 모두 동일하게 ‘He’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father’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2. 지문의 경우

〈표 2〉 감정 주체가 제시된 지문 속의 감정 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주어	不安	나는	불안, 불안감, 불안하게, 불안 속에서, 불안하다	I	anxiety, anxious, nervous feel uneasy, gloom, uneasiness
		나는	불안한, 불안해져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me	anxiety, make uneasy
	不安になる	나는	불안하다, 불안해지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I	feel uneasy, feel anxiety unease, became anxious
				me	make uneasy
	気味を悪がる	나는	불안하다, 겁이나다, 기분이 좋지 않다,	I	be uneasily, uneasiness
				me	unnerved
	畏縮する	나는	위축되다	I	be awed by, be nonplussed by quailed
	恐れる	나는	우려하다, 겁내다, 걱정하다 두렵다, 겁나다	I	be fear, be dread, dread have a gloomy, be afraid
	心配する	없음	마음이 놓이지 않다, 마음이 무겁다, 걱정되다, 걱정하다, 걱정스럽다	I	be worried, offer, be concerned
		내가	걱정이 되다, 만일에 대비하다,		
		나는	무슨 일이 생기다, 걱정하다	my	weigh on one's mind
		우리 집	걱정하다, 신경쓰다	family	bother, be disturbed, be concerned
小さくなる	나는	움츠러들다(듣고 말다), 작아지고 말다, 기가 죽고 말다,	I	feel small, be shaken	
			me	made shrink	
躊躇する	나는	우물쭈물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I	hesitate, be tempted to tear decide to do+change	
	없음	망설이다			
ぞっとする	나는	소름이 끼치다	I	shudder, hate to think	
	없음	소름이 끼치다	me	make shiver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목적어	恐ろしい	나 자신도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두려움	I, me	dreadful, frightening frighten
		나는	불안감	my	a dreadful anxiety
	不安な	나를	불안감, 불안한,	me	uneasy mood, strange anxiety
		없음	불안, 불안감		
躊躇う	나를	머뭇거리다, 궁해하다, 찢찢매다, 주저하다	I me	be hesitate hesitate	
1인칭+의 +신체	心配	나의	불안감, 불안, 걱정, 근심	I	anxiety
	恐ろしい	나의	무섭다, 두렵다, 놀랍다, 크다, 두려움, 공포	me	frightening, oppressing
				my	dreadful.
				I	be afraid
				◎	terrible, frightening
	震える	나는	떨리다, 대답하다	my	shake, quiver
		나의	떨리다		
	震わす	나의	떨리게 만들다	my	make tremble, shake with fear overcome by fear
없음		떨리다			
震わせる	나의	떨게하다, 곤두서다, 뒤 흔들었다. 곤두서게하다	◎	shake with fear, make tremble, overcome by fear	
	나를	전율케하다			
2·3인칭 주어	不安な	선생은	불안한, 불편한, 평정을 잃은	Sensei	uneasy
				his	uneasiness
	不安である	아버지는	불안하다, 불안해하다	him	uneasy, anxiety, anxiety
	선생님의	엄청나다, 무섭다			
	없음	끔찍하다			
	気味を 悪くする	부인은	불안해 하다. 신경을 곤두세우다, 무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다.	Sensei's wife	be uneasy, be disturbed
	◎	disturb			
	恐れる	아버지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my father	be frightening, be dread, be afraid
선생님은					
	心配	(어머니)	어떻게 되다, 변고(가 있다)	◎	danger, concern
편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다),	we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2·3인칭 주어	心配する	어머니는	걱정이 되다. 놀라다	I	be worried, be anxious
		어머니는	걱정하다, 근심 가득하다, 근심스럽다	she mother	be worried, be anxious, be unconcerned worry, anxious
	心細い	두분	불안하다, 맘이 놓이지않다, 딱한 마음이 앞서다, 외롭다	they	feel helpless, be lonely
2·3인칭 +의+	不安	사모님의 부인의	불안 불안	her	uneasiness, distress
2·3인칭 +의+신체	蒼い	선생님의	창백하다, 핏기가 가시다 새파랗게·하얗게 질리다	his	be pale
				Sensei's	be pale
	心細い	아버지의	불안해하다, 허탈감에 빠지다	my father's	plaintive, helpless, unhappy
		어머니는	불안에 떨다, 불안해하다.	she	miserable, frightened and helpless
		어머니의	불안하기 짝이없다	her	be helpless
震える	선생의	떨리다	Sensei ●	be shaking, trembled trembled	

●: 감정 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일부 예에서는 문의 흐름을 이용한 의역이 보였다. 한편 영어역은 ‘명사⇨명사, 동사’, ‘형용사⇨형용사, 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동사⇨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 분사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어역은 ‘불안하다’, ‘두렵다’, ‘떨리다’, ‘전율하다²³⁾’ 등과 같이 ‘Fear類’ 표현이 우세했지만, ‘위축되다’, ‘기가 죽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Sadness類’뿐 아니라 ‘평정을 잃다’, ‘만일에 대비하다’, ‘허탈감에 빠지다’와 같이 다양한 어휘가 이용되었다. ‘蒼い’의 색채에 관련된 ‘怖’의 표현으로는 ‘새파랗다’, ‘하얗다’, ‘창백’과 같이 ‘푸른색’과 ‘흰색’으로 나타났다. 영어역은 ‘fright’, ‘unhappy’, ‘dread’, ‘quiver’ 등과 같이 ‘Fear類’,

23) ‘전율하다’는 반응형의 ‘Joy類’와 ‘Fear類’에 속하지만 문의 분위기상 ‘Fear類’에 속한 것만 다룬다.

‘Sadness類’ 등의 동사 외에도 ‘oppress’, ‘wonder’ 등과 같은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주어는 무생물 주어(감정표현의 원인)로, 감정 주체는 목적어로 제시하여, 주어가 목적어에게 영향을 끼쳐 ‘그러한 느낌을 내다’라는 표현도 보였다.

* 1인칭인 경우

(3) 私は帰った当日から、あるいはこんな事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心のうちで暗にそれを恐れていた。

나는 고향 집에 온 날부터 어쩌면 부모님이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우려하고 있었다.[범]

I had had a gloomy premonition that this might happen ever since I arrived.[M.M]

(4) それだから尊いのかも知れないが、もし間違えて裏へ出たとしたら、どんな結果が二人の仲に落ちて来たらう。私は想像してもぞっとする。 그러므로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만약 잘못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범]

I was, of course, not aware of all this at the time. I hate to think what might have happened had I acted differently.[Edwin]

(5) 許くという言葉が、突然恐ろしい響きをもって、私の耳を打った。

파해친다는 말이 내 귓전을 때리는 순간 가슴이 섬뜩했다.[인]

The word disclose had a frightening ring.[M.M]

감정 주체가 1인칭인 경우의 번역 예를 보면, 한국어역은 예 (3)처럼 보통 일본어 문에서 제시한 주체를 제시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화자가 유추 가능한 경우는 예 (4)처럼 감정 주체를 제시하지 않았다²⁴⁾. 예 (4)의 ‘ぞっとする’에 대한 한국어역은 ‘소름+-이+끼친다’와 같이 2개 이상의 어휘를 이용해 번역한 경우가 많았고, 영어역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Fear’의 감정 표현에 대해 ‘Anger類’의 범주에 속한 동사와 인지 동사 ‘think’를 이용해 번역하기도 했다²⁵⁾. 감정 주체가 문중의 주어 자리에서 발

24)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p.240.

25) 다른 번역 작품에는 ‘It makes me shiver’와 같이 감정의 원인을 주어로 두어,

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 (5)처럼 감정 주체의 신체를 통해 감정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어역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초점에 두어 ‘가슴이 섬뜩하다’로, 영어역은 ‘怖’의 원인인 무생물 주어에 내세워 주어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번역했다.

* 2·3인칭

- (6) 先生は美しい恋愛の裏に、恐ろしい悲劇を持っていた。

실은 아름다운 사랑 뒤에 끔찍한 비극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책]

I could not know that there had been in Sensei's life a frightening tragedy, inseparable from his love for his wife.[Edwin]

- (7) 先生はそれでも、冷たい眼で研究されるのを絶えず恐れていたのである。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은 늘 경계하듯 두 눈을 번득이며 자신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다.[책]

Even in his relationship with me, he was in constant dread of being coldly analyzed.[Edwin]

예 (6), (7)은 3인칭 인물이 주어 자리에 놓인 것으로, 감정표현 어휘에 ‘のだ’가 더해져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어역을 보면 일본어와 유사한 문 구조에 대응시켜 번역된 경우가 많았지만, 예 (6)처럼 제시된 주어에 생략하고 문 구조를 바꾸면서 소유의 ‘持つ’를 존재의 ‘있다’로 번역되거나 예 (7)처럼 ‘Fear類’에 속하지만 공포로 인한 신체 변화의 반응형인 ‘전전긍긍하다’로 번역되기도 했다. 영어역을 보면, 3인칭 인물의 감정표현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도 있지만, 예 (6)처럼 3인칭 인물의 직접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보다 이미 일어난 사건의 성질에 초점을 두어 서술자가 판단하고 인식한 결과로 다루어 번역 예도 있었다.

그것이 감정 주체인 목적어인 ‘me’에게 영향을 주어 신체 반응 ‘shiver’을 일으켰음을 나타내는 번역 예가 있었다.

3. 편지문인 경우

〈표 3〉 감정 주체가 제시된 편지문 속의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주어	恐ろしさ	나는	공포, 두려움, 놀라움	I	feel fear, fear
		없음	두려움	◎	fear, terror, pain
	驚怖	나는	공포감, 험한 꼴, 공포심, 기억, 모습	I	shock, terror, horror
	心配	나는	걱정, 신경 쓸 필요	I	be worried, bother
		내가	걱정, 지장, 어려움	◎	(not) fortunate
	不安	나는	불안, 안절부절, 두근두근, 불안감, 불안하다	I	be uneasy, restless, agitation restlessness, uneasiness
		없음	불안하다, 안절부절	◎	nervous
	不安に	나는	불안해지다, 불안한 상태로, 불안으로,	I	uneasy doubt, anxiety, fear
	恐ろしい	내가	두렵다, 소름이 끼치다, 파렴치하다, 터무니없다, 무섭다, 두려움을 느끼다	I	filled with horror · fear frightened.
			me	terrible	
		없음	끔찍하다, 무섭다, 두렵다.	my ◎	fear cruel and unnatural
	怖い	나는	두렵다, 두려운 생각이 들다,	I	be afraid, tremble
		없음	두렵다		
	気味悪い	나는	기분 나쁘다, 끈적하다. 불쾌하다. 식은 남이 나다	I	feel the cold, nasty uncomfortable
	恐れる	나는	무섭다, 두렵다, 두려워하다, 우려하다, 걱정하다, 경계하다	I	be afraid of, fear don't mind quarreling feel + more than fear, have fear
		없음	겁나다		
思い煩う	나는	고민하다, 번민하다 번민에 빠져있다	I	be desperately to, be absorbed in, struggle with	
心配する	내가	걱정되다, 두고 볼수 없다, 결에서 지켜보다	I	be anxious, worry	
			my	anxiety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주어	立ちすくむ	나는	속만 태우다, 굳어지다 나아가지 못하다, 얼어붙다, 주춤거리다 움짱 달짝 못하다. 폼짝 할 수 없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 제 자리 걸음만 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버리다, 움직일 수 없다	I	stand still be paralyzed, transfixed
			my	be rooted	
	躊躇する	나는	주저하다, 망설이다, 망설여지다	I	hesitate, be hesitant, be tempt to
		없음	망설이다	◎	hesitation, hesitant
	震え出す	나는	떨기시작하다, 떨리다	I, my body	begin to tremble
	震える	나는	떨리다	I	with trembling
	ぞっとする	나는	오싹하다, 얼어붙다 섬뜩하다, 소름이 돋다, 소름이 끼치다 소스라치게 놀라다, 섬뜩한 느낌이 들다	I	be seized with a terrible fear. recall+horror
			my	stir	
		없음	전율하다, 소름이 끼치다 가슴이 섬뜩하다, 머리카락이 쭈뼛서다	me	horror make shive
	ひやひやする	나는	조마조마하다, 애가 타다 가슴을 졸이다, 식은 땀을 흘리다,	me	give+discomfort
I			be cold with trepidation. be in great consternatio		
1인칭+의	恐ろしさ	내	두려움	my	horror, fear
		나는	두려움		
		없음	두려움	◎	fear, terror, pain
1인칭 +의 +신상	恐怖	나에게	공포	my	fear
		내 마음을	공포		
		내 마음에	두려움, 공포		
	恐ろしい	내 가슴 (마음)에는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공포, 어둡다	me	horrible, fear
		不安に	내 마음이	불안해지다, 불안감	I
없음	불안, 불한하다		my	uneasiness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1인칭 +의 +신상	不安	나는	불안하다	I	apprehensive, be restless, state of agitation
		내 마음은	불안하다		
		내 가슴을	불안, 불안한 마음, 불안감	my	restless
		내 마음을	불안, 불안감	me, ◎	uneasiness, anxiety
震える	震える	나는	떨리다, 곤두서다	I	be irritated,
		나의	진동이다, 떨리다	my	trembling, beating
2·3인 칭주어	萎縮する	그는	위축되다, 쪼그라들다, 작고 왜소하다, 작아지다,	he, K	seem to shrivel, become smaller, shrug it off
			恐れる	어머니는	무시무시하다, 무섭다, 위험하다, 치명적이다
	그는	무섭다, 지독하다, 무서우리만치 철저하다		he	be terrible, be intimidating. be frightening
	心配する	누나가	걱정하다	K's sister	be worried, ne anxious
	躊躇する	그는	주저하다, 꺼리다, 선뜻-하지 않다, 결코-하지 않다	he	I feel+afraid)+he hesitate, I feel+he reluctant,
	小さくなる	그는	작아지다, 작고 왜소하다,	he, K	seem to shrivel, become smaller, shrug it off
2·3인 칭+의 +신상	震える	그의	떨리다, 실룩거리다, 움찔거리다, 흔들리다	his	be trembling, working
			恐れる	아버지의	무서운
2·3인 칭목적어	心配する	누나를	걱정하다	K's sister	be worried

◎: 감정 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는데, ‘명사’가 ‘부사’ 또는 ‘동사’로, ‘부사+する’가 2개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진 어구로 번역되는 등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어휘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와 같이 ‘Fear類’ 표현이 우세했지만, ‘곤적하다’, ‘나아가지 못하다’, ‘식은땀이 나다’와 같이 ‘Fear類’ 외에 ‘Sadness類’의 분류에 있는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역은 ‘명사⇒명사, be+형용사’, ‘형용사⇒형용사, 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동사⇒동사, 형용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표현을 이용한 번역이 많았고, 전후 관계에 따른 상황에 따라 어휘 사용이 결정되어 ‘paralyzed’, ‘transfixed’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감정

주체가 1인칭이 아닌 경우, 화자는 판단 주체로 제시되거나 ‘seem’, ‘know’ 등을 이용해 화자가 제 3자의 감정을 서술하는 식으로 번역되었다. 또 무생물(감정표현의 원인, 사건 등)을 주어로 감정 주체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능동적인 표현도 보였다.

* 1인칭인 경우

(8) 若い美しい人に恐ろしいものを見せると、折角の美しさが、そのために破壊されてしまいそうで私は怖かったです。

젊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그토록 무서운 광경을 목격시킬 경우 그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범]

I trembled to imagine how such a terrible sight could destroy the loveliness of one so young and beautiful. [MM]

(9) その時の私は恐ろしさの塊りといいたまうか、または苦しさの塊りといいたまうか、何しろ一つの塊りでした。

그때의 내 모습은 두려움으로 굳어 버린 돌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괴로움으로 굳어버린 돌이라 해야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하나의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지.[문]

Exactly what the emotion was that I felt then, I am not sure. Perhaps it was fear; or perhaps it was terrible pain.[Edwin]

감정 주체가 제시된 일본어 문장에 대해 일부 한국어역에서는 예 (8), (9) 처럼 주어가 생략되거나 주어를 대변할 수 있는 신체로 번역되기도 했다. 보통 일본어와 유사한 구조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예 (8)의 ‘형용사의 명사수식형+명사+동사’처럼 2개 이상의 어휘와 함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표현을 더한 설명조의 번역도 보였다. 문 구조상 예 (9)는 ‘怖’의 명사형으로 ‘명사형+의+명사’의 구조인데, 한국어역은 ‘명사형+변화의 격조사+동사의 명사 수식형+명사’로 명사형을 서술적으로 풀어서 번역했다. 영어역은 형용사를 대신해 감정에 대한 신체 반응을 나타내는 동사 ‘I tremble’로 번역하거나 ‘명사’ 표현에 대해서도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I felt+It was fear’로 번역했다.

* 2·3인칭인 경우

- (10)けれども月々の費用を金の形で彼の前に並べて見せると、彼はきっと それを受け取る時に躊躇するだろうと思ったのです。
 하지만 매달 드는 비용을 돈으로 직접 그 친구 앞에 들이밀면 그는 틀림없이 당황해하며 선뜻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K는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었네. [문]
 But I was afraid that he would hesitate to accept my help every month, if I offered it in the shape of money; his sense of independence was so strong. [近藤]
- (11)私がこういった時、背の高い彼は自然と私の前に萎縮して小さくなるような感じがしました。
 내가 이렇게 말하자 키가 큰 그는 자연스럽게 아주 작고 왜소한 모습이 되었지.[인]
 K seemed to shrivel before my eyes. He seemed not half as tall as he once was.[Edwin]

예 (10), (11)은 3인칭 인물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때의 감정표현에는 추량과 추측·추량 표현인 ‘だろう’, ‘ようだ’과 함께 나타났다.²⁶⁾ 이에 대한 한국어역을 보면, 예 (10), (11)과 같이 서술자인 화자가 판단한 3인칭의 인물을 ‘당황한 모습’, ‘작고 왜소한 모습’이라는 시각적인 효과를 지닌 표현으로 제시했지만, ‘だろう’와 ‘ようだ’의 의미는 배제한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怖’의 심리를 번역했다. 다만 예 (10)에서는 술어(당황하다)와 부사구(받을 때에)를 바꾸는 대신 ‘受け取る’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덧붙였다. 영어역을 보면 3인칭 인물의 감정 상태에 대해, 예 (10)처럼 3인칭 인물의 ‘hesitate’라는 상태를 화자가 보고 판단하여 ‘怖’의 분위기를 전하거나, 예 (11)처럼 ‘seem’를 이용해 3인칭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완곡적으로 제시한 후 크기의 축소라는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에 근거를 두어 번역했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가 제시한 문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 주어 중심으

26) 주 3)과 같음, pp.72-73.

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부가적인 표현을 더해 주체의 감정을 강조시키기도 했다. 영어역에서는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주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이 주어로 오기도 했으며, 화자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 외에도 주변 상황과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IV.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

일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해 화자는 일일이 주어로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²⁷⁾ 또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 가능한 것은 생략가능하다고 한다.²⁸⁾ 이와 같이 일본어는 문중의 구성요소가 생략 가능한데,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중에 감정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해 생략된 주체와 감정표현에 대해 한국어역과 영어역의 번역 양상을 서술한다.

1. 회화문의 경우

〈표 4〉 감정 주체가 생략된 회화문에 나타난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

회화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없음	心配	없음	걱정, 벌일, 걱정되다, 걱정이다, 걱정하다, 불안하다, 신경 쓰다, 어떻게 되다	I	be worried, feel uneasy	
				me	be a worry for	
				you	be worried, be anxious	
				he	worry, sudden change	
	心配する	없음	제가	걱정하다, 걱정을 하다	me	worry
					●	worry, anxiety
			걱정하다	They	worry, be worried	

27) 주 24)와 같음.

28) 주 16)과 같음, pp.227-229.

회화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없음	ひやりとする	없음	섬뜩하다, 기겁을 하다 가슴이 철렁하다 가슴을 쓸어내리다	I	think+go mad feel+ a dagger be pointed think+turn odd
		난	눈앞이 노래지다		
	怖くなる	없음	두려워지다, 놀라다, 무서워지다	I	be afraid, terrify
	恐ろしい	없음	무섭다	◎	be frightening
			불안하다, 듣기 거북하다 마음 약하다	◎	horrible, frightening
				he	depressing, mournfully

◎: 감정 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대체로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 및 표현으로 번역되었는데, 일부 ‘명사’, ‘부사+する’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선정된 어휘로는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와 같이 ‘Fear類’의 표현이 우세했지만, ‘놀라다’와 같이 ‘Surprise類’의 표현 외에 ‘어떻게 되다’, ‘마음 약하다’, ‘듣기 거북하다’, ‘가슴을 쓸어내리다’, ‘노래지다’와 같이 문의 흐름을 이용한 의역도 보였다. 영어역은 회화문이라도 생략된 인물을 제시했으며, 무생물 주어인 감정 주체에게 ‘느낌을 준다’는 형식이 이용되었다. 품사에 있어서 ‘명사⇨명사, be+형용사’, ‘형용사⇨형용사, 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동사⇨동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표현이 많았으며 품사의 일치도가 한국어역 만큼 높지 않았다. 어휘 선정은 전후 관계에 따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 「あの時はいよいよ頭が変になったのかと思って、ひやりとした」と後で兄が私にいった。
 “난 정말 그때 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신 줄 알고 눈앞이 노래졌다.” 나중에 형이 말했다.[책]
 “I really did think he had finally gone mad,” said my brother later.[Edwin]

- (13) 「いや考えたんじゃない。やったんです。やった後で驚いたんです。そうして非常に怖くなったんです」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했지요. 한 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졌던 것입니다.”[범]
“It’s not thinking that’s led me here. It’s doing. I once did something that shocked me, then terrified me.”[MM]
- (14) それが、いざという間際に、急に悪人に変るんだから恐ろしいのです。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다급해지면 순식간에 악인으로 변하니까 무서운 거야[이]
The frightening thing is that they can suddenly turn bad when it comes to the crunch.[M.M]

예 (12), (13), (14)는 감정 주체가 문중에 나타나지 않은 예로, ‘怖’의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로서 예 (12)는 ‘ひやりとする’, 예 (13)에는 ‘怖い’, 예 (14)에는 ‘恐ろしい’가 있다. 감정 주체가 생략된 일본어 문에 대해서 한국어 어역은 유사한 방식으로 생략된 채로 번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일부 예에서는 예 (12)처럼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감정 주체를 복원시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섬뜩하다’, ‘기겁하다’와 같은 사전적 어휘에 제한두지 않고, ‘노래지다’와 같이 시각적 요소를 더해 번역시켰다. 영어역은 ‘怖’의 주체인 ‘I’, ‘怖’의 원인 ‘he had gone mad’, 그리고 이에 대해 인식하는 ‘think’ 동사를 이용해 번역했다.²⁹⁾ 예 (13)처럼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고 하듯이 한국어역은 주체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³⁰⁾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복원 가능한 단서가 필요한데, 화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의 어미 ‘-더’를 통해, ‘怖’의 주체는 유추 가능할 수 있다. 영어역은 대체로 생략된 감정 주체를 모두 제시했는데, 사람 주어만이 아니라 무생물 주어인 ‘怖’의 원인을 내세워 목적어인

29) Meredith McKinney의 작품은 Edwin McClellan의 작품과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近藤いね子の 번역 작품에서는 “I felt as if a dagger were pointed at my heart~”와 같이 ‘ひやりとする’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시켰다. 이러한 차이의 양상은 의성어 의태어 부분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30) 다른 번역 작품에서는 ‘내 경험’ ‘나 자신’과 같이 ‘怖’의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 회화문 안에서 제시되었다.

‘me’에게 ‘terrify’라는 힘을 가하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예 (14)와 같이 한국어역에서는 ‘変る’의 주체인 ‘사람들이’는 복원한 반면 ‘무섭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복원하지 않았지만, 화자의 추측이나 소신의 표현인 ‘-거’를 통해 ‘怖’의 주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영어역을 보면, ‘怖’의 상황을 무생물 주어로 제시하면서 ‘怖’가 유발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일본어의 문 구조와 다른 양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2. 지문의 경우

<표 5> 감정 주체가 생략된 지문 속의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없음	畏怖	없음	두려움, 불안, 두려워하다	● I	terrible fear
	不安に	없음	불안한 생각에, 불안감 불안에, 섭섭한 마음, 불안해지다,	I	suffer, doubt
				me	unexpected terseness
	不安らしい	없음	불안, 불안감, 불안하다,	I ●	feel anxiety, see hover uneasiness
	恐ろしい	없음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	I	ugly and frightful, terrible
	心配する	어머니가	슬픔에 잠기다, 걱정하다, 애타우다, 걱정하다	she	frightened, be anxious, be worried
		없음	걱정하다	he	be anxious
		없음	걱정하다, 걱정을 하다, -하면 했다	I	feel pity, be anxious, concern, filled with pity, worry, anxiety
	躊躇する	없음	주저하다, 머뭇머뭇하다,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다, 우물쭈물 서있다.	I	hesitate, linger
		●	주춤하다, 주저하다	●	seem to linger, hover be arrested for a while.
		●	머뭇거리다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대부분 감정 주체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으며, 품사에 있어서도 ‘명사’표현을 제외하고는 일본어와 유사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영어역은 ‘명사⇨동사, 형용사’, ‘형용사⇨동사, 형용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동사⇨동사, 형용사, be+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와 같이 분사표현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어역은 ‘Fear類’ 표현이 우세했지만, ‘섭섭하다’ ‘외롭다’ ‘딱하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Sadness類’뿐 아니라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다’와 같이 다양한 어휘가 이용되었다. 영어역은 ‘suffer’, ‘pity’ 등과 같이 ‘Fear類’ 외에 ‘Sadness類’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seem’ 등을 이용해 화자가 제 3자의 감정을 서술하기도 했다. 또 주어는 무생물 주어로 감정 주체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느낌을 내다’라는 능동적인 표현도 보였다.

(15)むしろそれとは反対で、不安に揺かされるたびに、もっと前へ進みたくなった。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문]

On the contrary, whenever some unexpected terseness of his shook me, my impulse was to press forward with the friendship.[M.M]

(16)それは迷惑とも嫌悪とも畏怖とも片付けられない微かな不安らしいものであった。

그것은 귀찮다거나 싫다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닌, 약간 불안해하는 눈빛이었다.[이]

It seemed a slight uneasiness, which could not be expressed by the words bewilderment, hatred, or fear. [近藤]

감정 주체가 생략된 문을 보면 예 (15)와 같이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화자가 ‘怖’를 느끼고 판단하는 경우와 예 (16)과 같이 화자가 2인칭·3인칭의 인물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는 표현이 있었다. 감정 주체가 생략된 일본어 문에 대해서 한국어역은 일본어 문과 같이 생략된 채로 번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번역 어휘를 보면, 사전적 어휘에 머무르지 않고 예 (15)처럼 ‘감정형용사+に’를 ‘Sadness類’의 반응형 표현 ‘섭섭하다+명사(마음)’로 재생산시키기도 했다. 영어역은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의 요소를 주어 자리에 두어 감정 주체를 복원시켜 번역했는데, 물주구문에서 주어를 부사로, 목적어를 주어로 번역하는 한국어역의 역발상을 볼 수 있었다.

예 (16)의 한국어역은 3인칭의 감정 상태인 '畏怖', '不安'을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과 같이 동사로 풀어 설명한 후 시각적 증거인 '눈빛'이라는 어휘를 더해 번역했으며, 영어역은 서술자의 생각을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it seems that ~'를 이용해 3인칭의 감정 상태를 서술했다.

3. 편지문인 경우

〈표 6〉 감정 주체가 생략된 편지문 속의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회화: 없음	心配する	없음	걱정하다	you	worry
지문: 없음	恐れ・怖れ	없음	두려움, 공포	her	fear, dread
		그녀의	두려움		
	恐ろしさ	없음	두려움, 공포, 공포심 참혹한, 두려워하다	I	feel fear, feel terror
				me	frightened
				◎	fear, fright, dreadful
	恐怖	없음	공포감, 공포심, 두려움	◎	fear, dread, horrified recognition
				나를	두려움, 두렵다
	心配	없음	걱정, 염려, 아주머니의 (쓸데없는) 것 사모님의	I	be anxious, worry, do not relish
				Okusan	be worried
				her	anxiety
不安	없음	불안감, 불안, 불안한 마음	I	be afraid of, fear	
不安な	없음	불안, 불안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	insecurity, uneasy and troubled uneasy	
恐ろしい	없음	두렵다. 무섭다, 끔찍하다, 참혹하다, 험하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I	fear, be afraid, dreadful, frighten	
			me	frighten,	
			◎	horrifying, terrible, tremendous	
気味悪い	없음	기분 나쁘다, 거리끼다, 꺼려지다, 가슴이 아프다, 기분이 상하다, 버겁다	I	fear	
			◎	weird, repugnant	

일본어		한국어		영어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감정주체	감정표현
지문: 없음	恐れる	없음	무섭고 두려워하다, 두렵다, 무섭다, 걱정스럽다, 부담스럽다, 문제다, 고민하다	I	fear
				you	fear
				없음	be afraid
	心配する	없음	걱정하다	she	worry, be concerned
ぞっとする	없음	섬뜩하다, 오싹하다, (오싹) 소름이 끼치다, 무섭다, 잔울하다, 소스라치게 놀라다	I	shudder	
			me	filled with horror	
			my	fear	
			◎	horror	

◎: 감정주체는 없지만 주어는 있는 경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역은 일부 ‘명사’ ‘관용구’ ‘부사+동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로 번역되었다. 편지문의 형식에서 내레이터인 화자는 자기 시점에서 감정을 판단하고 서술해나갔는데 한국어역 역시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한국어역은 ‘Fear類’ 표현이 우세했지만, ‘꺼리다’, ‘아프다’, ‘놀라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Surprise類’와 ‘Sadness類’ 뿐 아니라 ‘부담스럽다’ ‘어마어마하다’와 같이 다양한 어휘가 이용되었다. 영어역에서는 한국어역과는 달리 감정을 느끼는 주체 및 주어조차 생략된 일본어 문에 대해 생략된 감정 주체와 이를 판단하는 화자의 입장도 복원시켜 번역되었다. ‘명사⇒명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동사, 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동사⇒동사, 형용사, be+동사의 과거분사’ 등과 같이 분사표현이 많았다. 또 ‘insecurity’, ‘pity’ 등과 같이 ‘Fear類’ 외에 ‘Sadness類’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무생물 주어(감정표현의 원인)로 감정 주체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느낌을 내다’라는 능동적인 표현도 보였다.

(17)それで「東京へ」とだけ付け加えたら、叔父がすぐ後を引き取って、
「よろしい決して心配しないがよい」と答えました。

그래서 “도쿄로”라고만 덧붙이자 숙부가 금방 말을 받아 “알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웅]

It would seem that she wanted to say much more, but she

succeeded only in saying, “... to Tokyo ...” My uncle quickly said, “All right. You mustn't worry.”[Edwin]

- (18) しかしその顔には驚きと怖れとが、彫り付けられたように、硬く筋肉を攫っていました。

하지만 놀라움과 두려움은 그녀의 얼굴에 아로새겨져 사라지지 않았다네.[인]

Despite her gentleness, however, I could see unmistakable signs of fear and shock in her eyes.[Edwin]

- (19) そうして、もしそれが奥さんやお嬢さんの眼に触れたら、どんなに輕蔑され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恐怖があったのです。

그리고 그것이 아주머니나 아가씨 눈에 띄다면 얼마만큼 경멸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느꼈었습니다.[웅]

I had assumed that this letter would say things deeply painful for me to read, and I was terrified at how Okusan and Ojosan would despise me if they saw it.[MM]

- (20) 同時にこれからさき彼を相手にするのが変に気味が悪かったのです。 그리고 그때부터 그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네.[문]

At the same time, I felt inside me a strange fear-amounting almost to a superstitious dread-of the person that had become my rival. [Edwin]

예 (17)은 편지문 내에서도 회화문 형식으로 제시된 예문인데, 이에 대한 한국어역은 일본어 문에서 제시된 문형과 문 기능에 따라 감정주체가 생략된 채로 번역했지만, 영어역은 생략된 주체를 제시했는데 금지 표현에 초점을 두어 행위자인 ‘You’를 복원시켜 번역했다.³¹⁾ 예 (18)³²⁾은 ‘怖’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화자가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인데, 한국어역을 보면 ‘その’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시켜 ‘怖’가 있는 얼굴의 소유자인 ‘그녀’를 제시했다.³³⁾ 영어역에서는 ‘怖’의 ‘sign’을 화자 보고 판단하여 인식했음(I

31) 近藤いね子 작품에서는 “Don't worry……”, MM 작품에선 “……you have no need to worry ”로 번역되는 등 용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32) ‘구체적인 인물+신체’는 감정 주체가 있는 항목에 넣었지만, ‘연체사+신체’ 막연한 대상이라 생략된 주제 부분으로 다루었다.

33) 다른 번역 작품에서는 ‘그’로만 번역되었는데, 3인칭 인물이 제시된 쪽이 의미

coud see)을 드러낸 동시에, 놀람의 주체인 ‘her’까지도 제시하면서 번역했다. 예 (19), (20) 역시 한국어역은 주체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고, ‘恐怖がある’를 ‘두려움을 느끼다’, ‘気味が悪い’를 ‘가슴이 아프다’로 한 것처럼 문 구조와 어휘 선정에 차이점을 보였다. 영어역은 생략된 주체를 모두 나타냈을 뿐 아니라, ‘I am terrified’, ‘I feel+fear’과 같이 서술자(화자)중심의 주어 ‘I’를 내세워 그에 따른 서술어를 선정해 번역했다.³⁴⁾

문중에 감정 주체가 생략된 경우를 보면, 한국어역은 대체로 일본어가 서술한 대로 감정 주체 없이 일본어 문과 유사한 문 구조로 번역되었지만, 일부 예에서 3인칭의 감정 주체나 또 다른 등장인물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영어역은 생략된 감정 주체를 모두 복원시켜 번역되었으며, 주어는 반드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도 해당되었다.

V. 맺음말

감정표현은 마음·의식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감정표현 어휘’, ‘고백표현’, ‘문 구성’, ‘간투사 표현’, ‘사역·수동·수수 표현’, ‘조사’ ‘호칭’, ‘문체 선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감정표현 가운데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こころ』에 나타난 ‘怖’의 감정표현의 번역 양상에 대해 ‘품사’, ‘주어처리’, ‘의미 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怖’에 관한 번역 양상을 보면 사전에 제시된 지시적 표현 이외에, ‘怖’의 의미가 아닌 다른 표현, 다른 품사로도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 문에서 사용된 ‘怖’의 감정 어휘에 대해, 한국어역은 일부 ‘명사’, ‘관용구’, ‘부사+동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와 유사한 품사로 번역되었다. ‘명사’인 경우는 용언으로 풀어 설명한 후 강조 어휘를 더해 번역했으며, ‘부사+동사’는 2개 이상의 어휘가 이용된 어구로 번역되기도 했다. 상

전달이 명료했다.

34) 오현아·박진희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8집, 2011, pp.1-29.

황에 따라 번역 어휘는 'Fear類'뿐 아니라 'Sadness類'와 'Surprise類'의 어휘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영어역의 경우, 한국어역에서 보였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로 '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동사⇨be+동사의 과거분사', '부사⇨be+동사의 과거분사'로 번역되었으며, 'Surprise類', 'Fear類'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외에 감정 주체의 상태로 대체 표현할 수 있는 동사까지도 이용되는 등 매우 다양했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있는 경우, 한국어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어가 제시한 문 구조와 유사한 방식과 사람 주어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부가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체의 감정을 강조시키기도 했다. 문중에 감정 주체가 생략된 경우 또한, 한국어역은 대체로 일본어가 서술한 대로 감정 주체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번역되었지만, 감정 주체가 3인칭이고 생략된 요소가 완전하게 복원될 가능성이 약할 경우는 3인칭의 감정 주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어 문의 감정 주체의 생략 유무와 관계없이, 영어역은 감정 주체와 판단 주체까지도 복원했으며, 서술자 중심의 주어를 내세워 그에 따른 서술어를 선정해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건, 행위, 감정의 요인 등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화자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주변 상황과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怖' 이외의 감정표현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라데군디스 슈톨체, 『번역이론 입문』, 임우영 외 역,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1.
- 이희자·이종희, 『조사어미사전』, 한국문화사, 2010.
- 고은숙, 「日韓兩國語의 感情形容詞文의 特徵에 関한 一考察」, 日本語學研究 제8집, 2003.
- 김광태, 『日韓兩言語의 感情의 오노매토피어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 송은미, 「한일 양언어의 감정복합동사의 구조분석」 日本語學研究 제30집, 2011.
- 오현아·박진희,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8집, 2011.
-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2008.
- 池上嘉彦, 『英文法を考える』, ちくま学芸文庫 1995.
- 泉子·k·メイナード, 『愛するふたりの「感情ことば」』, くろしお出版, 2001.
- 井上優, 「言語の対照研究の役割と意義」, 『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 国立国語研究所, 2002.
- 金谷武洋,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ちくま新書, 2003.
- 金田一春彦, 『日本語 上』, 岩波新書, 1988.
- 工藤真由美,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 久野暉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1978.
- 月本洋 『日本人の脳に主語はいらない』, 講談社, 2008.
-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 東京外国語大学, 1974.
- 中村明編, 『感情表現辞書』, 東京堂出版, 1993.
- 中村桃子, 『性と日本語』, 日本放送出版協会, 2007.

- 堀口純子, 『日本語教育と談話分析』, くろしお出版, 1997.
- 牧野成一, 『空間の言語文化学』, 안중환 역, 제이앤씨, 2001.
- 森田良行,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1989.
- _____, 『日本語の視点—ことばを創る日本人の発想—』, 創拓社, 1995.
- 山下秀雄, 『日本のことばとこころ』, 講談社, 1986.
- 楠見孝・米田英嗣, 「感情と言語」, 藤田和生(編), 『感情科学の展望』,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吉川千鶴子, 『日英比較 動詞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
- EGサイデンステッカー・安西徹雄, 『スタンダード英語講座第2巻日本文の翻訳』, 大修館書店, 1983
- F.ウンゲラー-/HJシエミット, 『認知言語学入門』, 池上嘉彦 외 역, 大修館書店, 1998.

참고자료

- 서석연 역, 『마음』, 범우사, 1990.
- 박유하 역, 『마음』, 웅진출판, 1995.
- 오유리 역, 『마음』, 문예출판사, 2002.
- 박순규 역, 『마음』, 인디북, 2002.
- 김성기 역, 『마음』, 이레, 2008.
- 이지선 역, 『마음』, 책만드는 집, 2012.
- 김활란 역, 『마음』, 더클래식, 2014.
- 김숙희 역, 『마음』,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
- 近藤いね子, 『KOKORO』, KENKYUSYA, 1941.
- Edwin McClellan, 『KOKORO』, HENRY REGNER COMPANY, 1957.
- Meredith McKinney, 『KOKORO』, PENGUIN BOOKS, 2010.

❖ ABSTRACT

A study about the aspect of translation on
'Hu(怖)' in novel 『Kokoro』
– Focusing on novels translated in Korean and English –

Yang, Jung-soon

Emotional expressions are expressions that show the internal condition of mind or consciousness.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s include vocabulary that describes emotion, the composition of sentences that expresses emotion such as an exclamatory sentence and rhetorical question, expressions of interjection, appellation, causative, passive, adverbs of attitude for an idea, and a style of writing. This study focuses on vocabulary that describes emotion and analyzes the aspect of translation when emotional expressions of 'Hu(怖)' is shown on 『Kokoro』. The aspect of translation was analyzed by three categories as follows; a part of speech, handling of subjects, and classification of meanings. As a result, the aspect of translation for expressions of Hu(怖)' showed that they were translated to vocabulary as they were suggested in the dictionary in some cases. However, they were not always translated as they were suggested in the dictionary.

Vocabulary that described the emotion of 'Hu(怖)' in Japanese sentences were mostly translated to their corresponding parts of speech in Korean. Some adverbs needed to add 'verbs' when they were translated. Also, different vocabulary was added or used to maximize emotion. However, the correspondence of a part of speech in English was different from Korean. Examples of Japanese sentences that expressed 'Hu(怖)' by verbs were translated to expression of participles for passive verbs such as 'fear', 'dread', 'worry', and 'terrify' in many cases. Also, idioms were translated with focus on the function of sentences rather than the form of sentences.

Examples, what was expressed in adverbs did not accompany verbs of 'Hu (怖)'. Instead, it was translated to the expression of participles for passive verbs and adjectives such as 'dread', 'worry', and 'terrify' in many cases.

The main agents of emotion were shown in the first person and the third person in simple sentences. The translation on emotional expressions when a main agent was the first person showed that the fundamental word order of Japanese was translated as it was in Korean. However, adverbs of time and adverbs of degree tended to be added. Also, the first person as the main agent of emotion was positioned at the place of subject when it was translated in English. However, things or the cause of events were positioned at the place of subject in some cases to show the degree of 'Hu(怖)' which the main agent experienced. The expression of conjecture and supposition or a certain visual and auditory basis was added to translate the expression of emotion when the main agent of emotion was the third person. Simple sentences without a main agent of emotion showed that their subjects could be omitted even if they were essential components because they could be known through context in Korean. These omitted subjects were found and translated in English. Those subjects were not necessarily humans who were the main agents of emotion. They could be things or causes of events that specified the expression of emotion.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ons, aspect of translation, emotional expressions of 'Hu(怖)', main agent of emotion

■ 논문접수일 : 2018. 11. 10

■ 심사완료일 : 2018. 11. 30

■ 게재확정일 : 2018. 12. 12

